

TDB경기동향조사(전국) -2016년 6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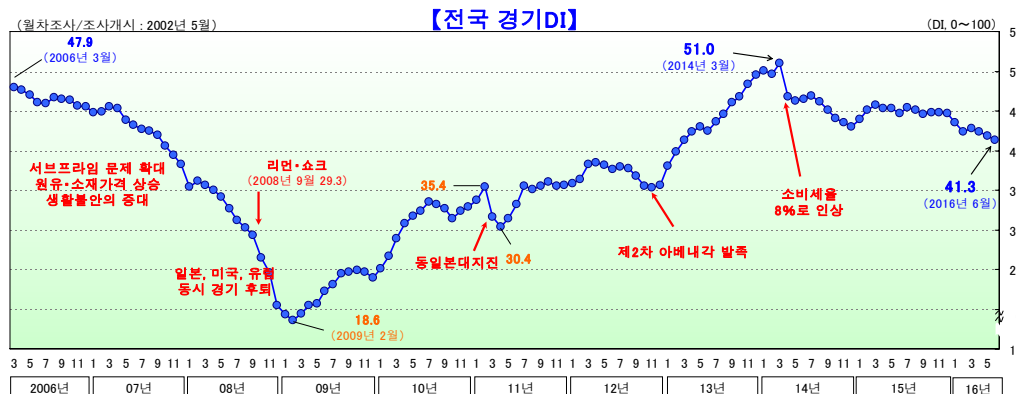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악화, 안팎에서 마이너스 쇼크가 잇따라

~ 브렉시트의 영향은 당분간 계속, 하향세로 추이 ~

(조사대상 2만 3,606사, 유효회답 1만 471사, 회답률 44.4%,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6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41.3이 되어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쿠마모토지진이나 연비데이터의 부정문제, 영국의 EU이탈 결정 등 국내외에서 악재료가 잇따르고 있어 악화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의 경기는 영국쇼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 기업업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하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 별로는 『제조』 『도매』 『운수·창고』 등 6개 업계가 악화, 『농·임·수산』 『금융』 『부동산』의 3개 업계가 개선, 『기타』가 보합세를 보였다. 경자동차의 판매침체나 쿠마모토지진의 영향이 많은 업종에서 나타난 한편, 마이너스 금리의 플러스효과는 『부동산』 등 일부에 머무르고 있다.
- 개선된 『토호쿠』 『큐슈』 및 보합세인 『추고쿠』를 제외한 7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토카이』는 자동차의 생산정지 등에 동반하여 관련 업종에 영향이 미친 한편, 쿠마모토지진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던 『큐슈』는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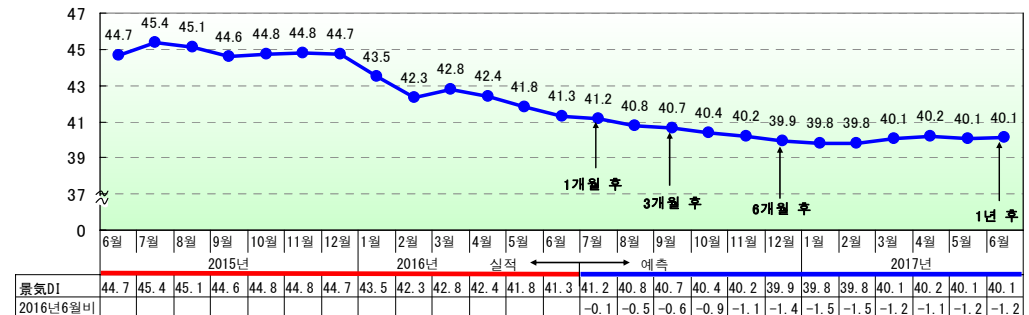
<2016년 6월의 동향 : 악화경향이 지속>

2016년 6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41.3이 되어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6월은 쿠마모토지진이나 대형자동차제조사의 연비데이터 부정문제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24일에는 영국의 EU이탈이 결정되어 기업의 체감경기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주택착공호수는 증가세인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억은 향후 경기의 불투명감 고조로 신중한 태도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사무소나 공장 등의 건축수요 정체도 건설관련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일본은행에 의한 마이너스금리 도입의 효과는 일부 업종에 한정되고 있다. 한편, 쿠마모토지진의 영향으로 악화되었던 『큐슈』는 3개월 만에 개선되어 지진을 계기로 크게 하락하였던 체감경기는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 국내경기는 국내외로부터의 악재료가 잇따르며 악화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의 전망 : 하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추이>

해외동향으로는 영국의 EU이탈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1,380사로 판명(테이코데이터뱅크 「영국진출기업실태조사」)되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럽전략의 재검토가 촉구된다. EU이탈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금리인상 연기가 안전자산으로써 엔화에 대한 수요가 고조되는 점은 엔고현상의 요인이 된다. 국내경기는 쿠마모토지진으로부터의 조기 복구·부흥이나 마이너스금리정책의 효과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소비는 소비세율 인상의 연기에 의한 막바지 수요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가계의 소득상승이 열쇠가 되겠다. 또한 마이너스금리는 서서히 주택투자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의 경기는 영국쇼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 기업업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하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종별 : 『제조』 12개 업종 중 10개 업종에서 악화

· 『제조』 『도매』 『운수·창고』 등 6개 업종이 악화, 『농·임·수산』 『금융』 『부동산』의 3개 업종이 개선, 『기타』가 보합세를 보였다. 경자동차의 판매침체나 쿠마모토지진 등의 영향이 많은 업종에서 나타난 한편, 마이너스금리의 플러스작용은 『부동산』 등 일부업종에 한정되었다.

· 『제조』 (40.1)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운송용기계·기구제조」 (42.7, 동 1.1포인트 감소)는 경자동차 판매의 침체에 대형자동차제조사의 연비부정문제에 의한 감소의 영향이 더해져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또한 그 영향은 관련된 공업용 플라스틱제품제조 등의 악화가 눈에 띈 「화학제품제조」 (42.2, 동 0.5 감소)등에도 파급되었다. 그리고 국민건축수요정책의 영향을 받아 「건축·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37.8, 동 0.5포인트 감소) 등, 『제조』는 12개 업종 중 10개 업종에서 악화되었다.

· 『도매』 (37.9) …동 1.0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기계·기구도매」 (39.7, 동 1.4포인트 감소)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5년 경과하여 2회차 차량검사대상 대수가 감소한 자동차부품이나 태양광 관련 수요의 하락이 영향을 미친 전기기기기구 등이 부진하여 3년 4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하였다. 또한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4.2, 동 2.5포인트 감소)는 일본전통종이와 양지(洋紙)도매 등에서 전단지나 팜플렛 등의 인쇄용지수요가 하락하여 출하량의 감소로 이어졌다. 자동차 관련 기동물 저하로 고철도매가 악화된 「재생자원도매」 (28.3, 동 5.0포인트 감소) 등, 『도매』는 9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 『운수·창고』 (40.0) …동 1.5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어 2015년 11월 이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운전수 부족에 동반하는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가격의 완만한 상승곡선으로 가솔린가격이 15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졌다. 또한 쿠마모토지진의 영향과 함께 대형자동차제조사계열 공급업체의 화재와 동반한 공장생산의 정지 등도 악화요인이 되었다. 한편, 4월부터 연유(燃油)할증료(연유특별부가운임)가 6년 만에 0엔이 되어 여행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이외에 백중(百中)선물의 출하시즌이 돌아와 냉장창고업 등이 개선되었다.

· 『부동산』 (48.4) …동 0.1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정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저하로 수익부동산을 중심으로 건물매매가 건조로 추이하였다. 또한 착공호수의 증가로 안정된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임대는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으며, 부동산대리·중개도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한편, 지가의 상승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오피스용 건물의 공실율은 개선되었지만 임대료의 상승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등 임대사무소가 악화로 돌아섰다.

	1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비	過去 最高
농·임·수산	41.9	42.9	44.7	44.7	44.6	45.2	46.4	43.6	44.5	42.3	42.4	42.1	42.3	0.2	
금융	49.2	48.1	46.5	46.3	47.3	46.6	46.3	45.3	44.3	44.8	45.5	44.3	44.8	0.5	
건설	47.7	48.6	48.8	49.1	49.5	49.6	49.3	47.9	45.9	46.3	45.2	44.9	46.3	1.4	
부동산	49.1	49.8	48.4	48.7	48.7	48.9	48.4	47.1	48.0	48.2	48.1	48.3	48.2	▲ 0.1	
제조	식품료품·서표제조	43.1	43.4	43.0	43.6	44.3	44.4	44.2	43.2	44.2	44.6	43.4	44.2	0.8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9.4	39.4	40.2	38.8	39.8	39.4	39.3	36.4	37.6	39.8	38.2	39.8	1.4	
	건축·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40.3	41.2	41.2	40.9	40.2	38.9	40.7	38.5	38.0	38.6	37.9	38.3	0.3	
	철·종이·종이가공제품제조	39.0	39.7	42.0	40.8	41.1	42.4	41.7	40.3	36.8	37.6	40.2	38.6	37.6	▲ 1.0
	출판·인쇄	33.5	33.7	34.9	34.8	34.8	34.6	34.7	34.0	34.6	35.3	34.1	34.0	35.3	1.3
	화학제품	43.9	44.7	45.3	44.4	44.4	44.9	45.4	44.3	42.8	42.7	43.0	42.7	42.7	0.0
	철강·비철금속·광업	42.9	43.6	42.8	41.7	41.4	41.8	41.5	41.1	38.8	38.3	38.3	38.1	38.3	0.2
	기계제조	51.3	51.9	50.3	47.3	47.9	47.3	48.6	46.0	45.5	45.7	45.3	44.0	45.7	1.7
	전기기계제조	47.4	47.4	44.8	45.2	45.2	44.9	43.0	42.8	42.8	42.3	40.4	42.8	2.4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9.7	50.9	50.8	48.3	46.3	47.0	46.2	45.7	44.6	46.8	46.8	43.8	46.8	3.0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	49.4	50.4	51.2	47.9	48.6	47.9	46.1	46.2	43.1	44.6	44.6	43.2	44.6	1.4
	기타 제조	37.8	39.2	37.7	40.0	39.8	40.0	39.6	39.4	39.1	40.6	37.5	37.8	40.6	2.8
	전체	44.0	44.6	44.2	43.2	43.3	43.3	43.5	42.2	41.2	41.6	41.3	40.6	41.6	1.0
도매	식품료품도매	43.0	44.1	42.7	43.6	43.0	43.1	42.6	41.9	40.9	42.2	42.6	41.0	42.2	1.2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4.8	34.4	34.7	36.5	37.8	34.4	34.4	33.5	32.7	33.8	35.7	34.6	33.8	▲ 0.8
	건축·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38.1	39.8	39.7	39.5	41.3	41.5	41.8	40.5	39.1	39.4	39.2	38.4	39.4	1.0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4.5	37.1	36.5	36.8	36.8	37.4	37.2	38.1	37.4	38.0	36.6	36.7	38.0	1.3
	화학도매	43.1	43.9	42.6	42.3	42.5	42.8	43.2	40.8	39.2	40.2	39.5	39.4	40.2	0.8
	재생자원도매	40.1	35.8	36.0	25.8	29.9	26.7	32.1	25.6	28.4	30.7	39.3	33.3	30.7	▲ 2.6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39.3	40.4	40.3	38.5	38.8	39.4	37.7	36.4	35.8	36.1	35.2	34.6	36.1	1.5
	기계·기구도매	45.1	45.6	45.3	43.6	43.6	43.4	43.6	42.6	41.2	41.7	40.9	41.1	41.7	0.6
	기타 도매	42.0	42.4	41.4	40.8	41.0	41.1	41.1	39.9	39.0	39.6	39.1	38.6	39.6	1.0
	전체	41.7	42.5	41.9	41.2	41.5	41.4	41.4	40.1	39.0	39.7	39.4	38.9	39.7	0.8
소매	식품료품소매	42.7	45.0	44.0	44.5	44.6	41.4	43.2	39.9	40.4	43.4	42.1	38.9	43.4	4.5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7.0	38.6	38.7	36.9	40.1	36.8	32.1	34.8	31.6	33.3	35.1	32.9	33.3	0.4
	의약품·약품첨제품소매	48.6	49.3	48.7	46.7	48.6	50.0	49.4	45.3	45.4	46.1	42.0	41.1	46.1	5.0
	가구류소매	43.3	41.7	41.7	42.9	42.9	42.9	47.2	42.9	40.5	40.5	38.1	42.9	40.5	▲ 2.4
	가전·정보기구소매	40.6	38.9	38.3	44.6	39.6	38.7	40.7	43.8	39.2	40.4	40.7	35.8	40.4	4.6
	자동차·동·부품소매	37.2	38.3	38.7	38.6	39.9	38.2	37.9	40.0	37.9	38.6	40.4	37.2	38.6	1.4
	전문상품소매	38.0	39.9	41.6	40.7	39.2	39.8	38.4	40.4	39.2	37.4	38.9	37.0	37.4	0.4
	각종상품소매	48.1	48.8	49.0	47.3	46.5	47.3	43.8	45.0	43.7	44.8	43.3	43.7	44.8	1.1
	기타 소매	43.3	35.7	44.4	44.4	36.1	38.9	43.3	44.4	41.7	44.4	41.7	42.9	44.4	1.5
	전체	40.7	41.9	42.4	42.2	41.6	40.9	40.2	41.0	39.5	40.1	40.2	38.0	40.1	2.1
운수·창고		42.6	44.4	44.9	45.1	44.7	45.4	45.3	43.2	41.9	41.9	41.5	41.5	41.9	0.4
서비스	음식점	48.3	47.4	51.3	45.3	49.2	46.2	44.4	47.1	42.1	43.6	43.1	42.3	43.6	1.3
	전기통신	50.0	47.0	53.0	59.3	57.6	53.0	51.5	58.3	54.2	50.0	59.1	52.4	50.0	▲ 2.4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3.0	50.0	51.9	56.7	55.0	55.0	55.0	52.4	53.7	50.0	51.9	47.6	50.0	2.4
	리스·임대	47.9	48.7	49.9	48.0	48.0	49.2	49.7	48.1	46.2	47.1	45.9	46.7	47.1	0.4
	여행·호텔	54.2	59.2	59.0	58.3	61.4	59.1	55.4	56.9	54.7	56.1	50.5	44.4	56.1	11.7
	오락서비스	37.9	37.3	38.0	37.9	38.0	38.0	38.6	39.1	37.3	36.9	38.0	36.8	36.9	0.1
	방송	46.1	49.1	46.1	41.7	45.1	46.9	47.8	43.8	46.9	45.6	46.7	44.4	45.6	1.2
	연대연스·경비·감시	47.4	47.6	47.4	46.0	46.1	47.1	46.4	44.8	43.8	43.9	44.4	44.3	43.9	▲ 0.4
	광고관리	41.0	39.8	40.7	40.8	40.7	40.3	39.2	37.2	40.9	37.5	36.8	40.9	4.1	
	정보서비스	55.4	56.4	55.8	55.5	56.0	54.9	54.9	55.2	53.3	53.4	53.4	52.5	53.4	0.9
	인쇄·복합·소재	56.3	54.4	55.0	54.2	54.7	52.5	53.1	50.9	52.7	54.7	53.1	52.5	54.7	2.2
	전문서비스	50.9	52.0	51.4	51.5	49.0	50.3	52.1	49.1	48.9	49.6	48.3	48.6	49.6	1.0
	의료·복지·보건위생	43.3	45.3	43.6	42.8	42.3	44.1	42.2	39.9	39.2	42.5	41.5	41.4	42.5	1.1
	교육서비스	44.4	40.6	44.1	42.1	45.0	50.8	46.7	46.3	46.8	47.4	43.0	42.2	47.4	5.2
	기타 서비스	49.5	50.9	48.5	49.3	49.2	50.1	49.0	45.9	47.5	47.1	46.7	45.7	47.1	1.4
	전체	49.7	50.4	50.1	49.6	49.6	49.6	48.6	47.4	48.2	47.5	46.8	48.2	48.2	1.4
기타		41.9	42.6	40.7	41.4	42.3	41.9	43.8	40.9	39.4	38.8	37.4	37.5	38.8	1.3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9.0	8.5	8.2	8.4	8.1	8.7	9.4	8.3	9.0	8.5	8.7	10.3	8.5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 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 등을 포함함.

규모별 : 전 규모에서 3개월 연속 악화

- 「대기업」이 45.1(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이 40.3(동 0.5포인트 감소), 「소규모기업」이 39.6(동 0.1포인트 감소)이 되었다. 사료가격의 하락 등으로 『농·임·수산』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개선된 한편, 경기침체나 지진에 의한 화물이동의 정체 등이 영향을 미쳐 『운수·창고』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1포인트 이상 하락하였다. 「대기업」은 10개 업계 중 7개 업계, 「중소기업」은 6개 업계, 「소규모기업」은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1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비
대기업	48.4	48.8	48.9	48.2	48.4	48.4	47.9	47.1	46.0	46.5	46.2	45.7	45.1	▲ 0.6
중소기업	43.6	44.5	44.1	43.6	43.7	43.7	43.8	42.5	41.3	41.8	41.4	40.8	40.3	▲ 0.5
(그 중 소규모기업)	43.1	43.4	43.2	43.2	43.2	43.1	43.3	41.8	40.3	40.8	40.3	39.7	39.6	▲ 0.1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8	4.3	4.8	4.6	4.7	4.7	4.1	4.6	4.7	4.7	4.8	4.9	4.8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포함,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낸다.

지역별 : 7개 지역이 악화, 『토카이』는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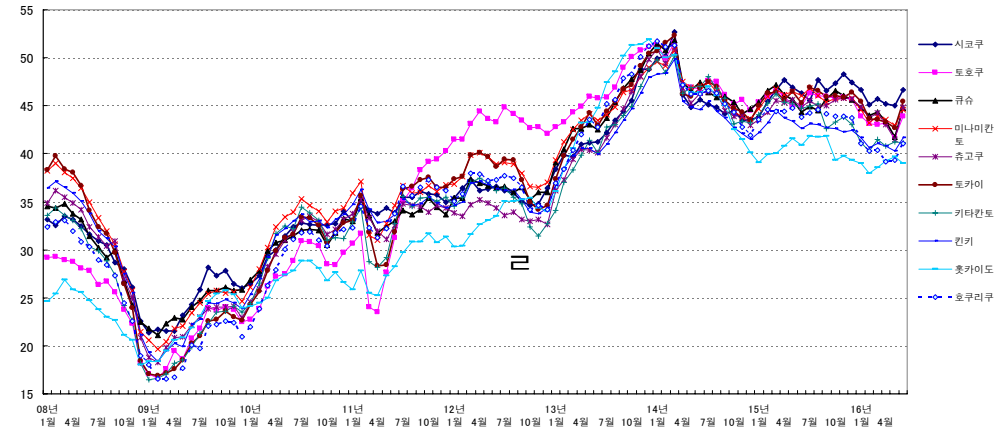
- 개선된 『토카이』 『큐슈』 및 보합세인 『츄고쿠』를 제외한 7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토카이』는 자동차 생산정지 등에 동반하여 관련 업종에 영향이 미친 한편 『큐슈』는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 『토카이』(41.5)…전월 대비 1.2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경자동차의 판매침체와 함께 연비부정문제와 대형자동차제조사 계열 공장에서의 폭발사고에 동반하는 생산정지가 자동차 관련 업종에 영향을 미쳤다. 「철강·비철·광업」 「기계제조」 「운송용기계·기구제조」를 중심으로 『제조』가 동 1.4포인트,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를 포함한 『도매』가 동 2.3포인트 감소하였다. 현 별로는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개최로 4월과 5월,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던 「미에」가 정상회의 폐막의 영향 등으로 동 2.7포인트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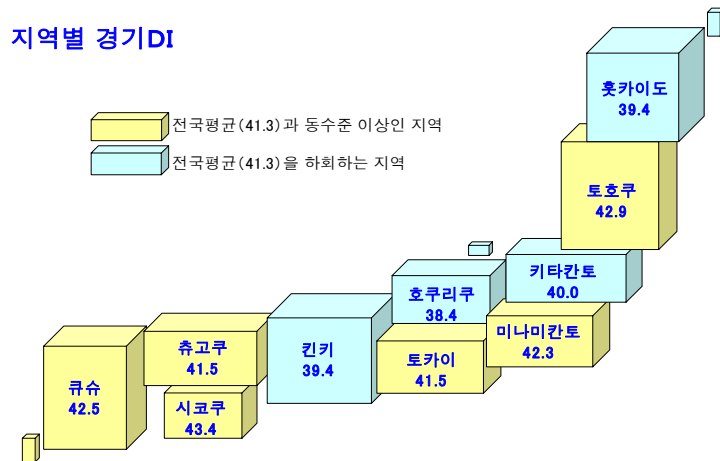
- 『킨키』(39.4)…동 0.9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전월보다 2.1포인트 감소한 『건설』은 건축착공이나 수주단가의 침체 등으로 지역 내 6개 현 중 4개 현이 악화되었다. 또한 신메이 신고속도로(新名神高速道路)의 사고에 동반하는 공사중지 등의 영향을 받아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동 1.1포인트 감소)나 급격한 엔고현상이 영향을 미친 「화학제품제조」(동 2.3포인트 감소)를 포함한 『제조』가 동 0.9포인트 하락하여 2013년 3월 이래로 40포인트 이하를 기록했다.

- 『큐슈』(42.5)…동 0.8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현 별로는 「쿠마모토」가 동 3.4포인트, 「나가사키」 「오이타」 「카고시마」도 동 2포인트 이상 회복되었다. 전월 하락하였던 「음식료품소매」 「가전·정보기기소매」 「자동차·동 부품소매」가 회복되는 등 『소매』가 동 5.8포인트 개선된 이외에 『제조』나 『서비스』도 동 2포인트 이상 개선되었다. 지진발생에 동반하여 2개월 간 2.6포인트 하락한 점에 따른 반동영향도 있으며, 집중호우도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의 정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지진을 계기로 크게 하락하였던 채광경기는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비
홋카이도	40.9	41.8	41.8	41.8	39.3	39.8	39.4	39.0	37.9	38.6	39.2	39.6	39.0	▲ 0.6
도호쿠	45.0	46.3	46.1	45.9	45.8	45.9	45.6	43.9	43.2	43.1	43.3	41.7	43.9	2.2
키타칸토	44.8	45.0	45.2	42.6	43.3	43.8	43.0	41.1	40.3	41.5	40.8	41.2	41.1	▲ 0.1
미나미칸토	46.1	46.8	46.1	45.4	45.8	45.8	45.8	44.6	43.2	43.9	43.6	43.0	44.6	1.6
호쿠리쿠	43.8	44.3	44.6	44.2	43.9	43.9	43.8	41.1	40.3	40.4	39.2	39.3	41.1	1.8
토카이	45.3	46.9	46.5	46.0	46.0	45.9	46.4	45.4	43.6	43.6	43.3	42.7	45.4	2.7
킨키	42.6	43.2	43.1	42.7	42.6	42.3	42.5	41.7	40.7	41.1	40.8	40.3	41.7	1.4
츄고쿠	44.8	45.5	44.9	45.0	45.6	45.8	45.8	44.8	43.7	44.3	43.1	41.5	44.8	3.3
시코쿠	46.3	45.6	47.7	46.5	47.3	48.3	47.5	46.7	45.1	45.7	45.2	45.0	46.7	1.7
큐슈	44.3	44.9	44.5	45.7	46.6	46.0	45.6	44.8	44.0	44.3	43.4	41.7	44.8	3.1
격차	5.4	5.1	5.9	4.7	8.0	8.5	8.1	7.7	7.2	7.1	6.0	5.7	7.7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대비 포함, 청색 부분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낸다.